

백삼위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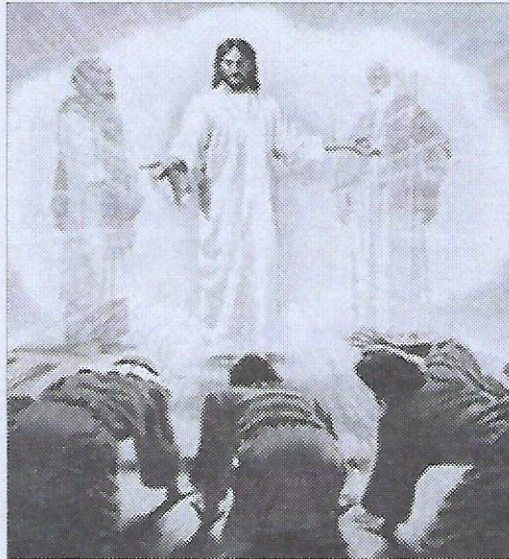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2주일

제35권 14호(나해) 2015년 3월1일

[묵상]



이
는
내
가
사
랑
하
는
아
들
이
다

苦盡甘來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편안한 자신의 현실에 안주해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런 모습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과 죽음, 갈등과 도전을 잃어버린
안일함과 순진, 나약함의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아픔, 슬픔, 힘듦, 어려움을 외면하고
근심 걱정 없는 곳에 편안하게 안주하자고 합니다.
힘든 가정, 어려운 사회,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힘들고 어려운 바로 지금, 이곳,
십자가의 자리가 곧 부활의 자리임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부활을 맞을 수 없습니다.
사순절!! 부활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제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제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제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제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제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최병위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요한, 박동옥 요셉, 변혜경 올리안나, 송근섭 발렌티노, 권분남 콜롬바, 박정례,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김기준 안젤라, 이필주 바오로, 현시영요셉, 이석진가브리엘, 안영희 마리아
	(생)정하상 바오로 & 정율리아 & 정젤마 & 정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오레이몬드 & 오스티븐, 김복순 벨라멧다, 남인구 야고보 & 변정선 안젤라,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최석원 안드레아 & 박민아 로셀리나, 김옥계, 윤희동 안토니오 & 윤남열 세라피나,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오마우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22,1-2.9ㄱ.10-13.15-18

화답송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 주님 눈에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 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8,31ㄴ-34

복음 환호송 ○길ियो 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르코(Mark) 9,2-10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3	153	153
봉헌	394	270	269
성체	378	308	304
파견	157	190	103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예언

제4장

은사의 식별

한국 가톨릭 교회는 성령체신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놀랍고도 풍부한 은사를 체험하였다. 또한 이 은사 덕분에 신자들의 신앙이 쇠신 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남용해서 교회 공동체에 혼란과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은사 식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은사의 식별은 이미 성경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문제였다.

1. 식별 은사

성경은 하느님의 영만이 아니라 악령, 곧 거짓의 영 또는 더러운 영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임금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아합이 오판을 하도록 만들어 결국 전사하도록 유인한다(1열왕 22,19-23.29-35 참조). 또한 구약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예언자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 하난야를 이렇게 꾸짖는다. “하난야,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예레 28,15).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난야에게 죽음을 예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실현되었다(예레 28,16-17 참조).

악령은 예수님께서 공 생활을 시작하실 때에도 등장한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악령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의지해서 악령의 유혹을 물리치셨지만,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려갔다” (루카 4,13). 예수님께서서는 더러운 영의 활동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셨다(마태 12,43-45; 루카 11,24-26 참조).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한다(마르3,11-12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영으로 이러한 악의 세력을 추방하는 일을 당신의 사명으로 여기셨고(마태 12,28 참조), 실제로 악령을 쫓아내셨다(마태 4,10.24; 17,14-20; 마르 1,21-28; 9,14-29; 루카 4,31-37; 6,18; 9,37-43 참조). 또한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을 쫓아내게 하셨다(마태 10,1; 마르 3,15 참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 주시어 지속적으로 교회회를 도와주신다. 하지만 순례의 도상에 있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거짓 영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베드로 서간의 저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계속>

고통을 이겨내는 '영적인 보약'

타볼산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당신의 수난을 예고하셨습니다.(마르 8,31-33)

그때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다."고 나섰다가 예수님께 혹독한 꾸중을 들었지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당신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신을 따르려면 먼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몹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쫓으시며, 풍랑도 가라앉히고 물 위를 걸으셨던 스승님이셨습니까. 빵을 많게 하시어 사천 명도 먹이시고 오천 명도 배불리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을 예고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그런 당혹스러움을 눈치채셨나 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당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천상적 위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고통과 시련 속에서 의심 없이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모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이할 고난에 대비한 '영적인 보약'과 같습니다. 그 영광스런 모습을 가슴에 묻어 하느님께 대한 확신을 얻고, 시련을 극복할 힘도 얻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 제자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예고하신 고난은 잊은 채, 그저 달콤한 '보약'에만 취해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지만, 막상 시련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느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더 커 보이고, 그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현실을 원망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도 달갑지 않습니다. 일 년 내내 부활절이고 기쁨의 알렐루야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을 지어 여기서 살고 싶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사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독서가 전하는 아브라함의 고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아야 했지만,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지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로마8,31)이 되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미사 때 성체성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당신의 거룩한 현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보약'입니다.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성당은 우리에게 '영적인 타볼산'입니다. 아멘.

◆ 유경춘 주교 / 서울 대교구 보좌주교

의자에게 배우다

의자는 피곤하면 어디에 앉을까.
의자는 의자끼리 포개어 앉더군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다독이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달래고,
슬픈 사람이 슬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비밀을
의자는 벌써부터 눈치챈 것 겁니다.
의자들도 아는 그걸 아직도 몰라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세준 요셉	김금자 테레사	전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1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2월27,3월 6,13,20,17일,4월 3일)
사순2주간 금요일: 소공동체
사순3주간 금요일: 요셉회
사순4주간 금요일: 양업회
사순 5주간 금요일: 대건회
성 금요일 (오후 3시):안나회

-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26일(목요일)
제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 본당 신부님의 부활절 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미사 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3월18일(수),19일(목), 24일(화),27일(금)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김 마누엘라 수녀님 환영합니다.

우리 본당에 전교 수녀님으로 김 마누엘라 수녀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동안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배론 청년회 사순 피정 안내

- 주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 18,20)
(청년 공동체의 삶과 의미)
- 일시: 2015년3월 7일 (토) 6pm ~ 3월 8일 (주일) 6am @ 본당
- 음식 및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최태훈 아오스당 ☎(310)508-2123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중입니다.

-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에 돌아옵니다.
- 장소 :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사순 특강 I, II

강사 : 김계현 성우 안토니오 신부(성 그레고리 성당)

● 특강 I

- 주제 : 부활과 회개의 의미와 기도하기
- 일시 : 3월10일(화요일) 오후 7시30분 저녁 미사후, 성전

● 특강 II

- 주제 : 죄,변화, 행복
- 일시 : 3월17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저녁 미사후, 성전

◆ 3월8일(주일)부터 서머타임 시작

8일(주일) 새벽 2시를 3시로 옮겨놓으십시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야 하는 셈입니다. (미사시간에 늦지않으십시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1일(주일) *소공동체 : 김밥 (\$4)
* 주일학교 : 미트볼 샌드위치 (5학년)
- 3월8일(주일) * 토동2,3반 : 소고기 우거지국밥(\$3)
* 주일학교 : 햄&치즈 샌드위치 (4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미순 강숙경 강인모 고천용 김병조 김선영 김성택 김재희 김충섭 민기남 박상준 박완철 서성용 오세원 유보나 육근주 윤선희 이미예 이상수 이윤무 이재철 이정훈 이현주 이형삼 임 순 임한나 정남형 정병훈 정정현 최영신 한혁수 홍인표 황인중 황지영	강미순 강숙경 강인모 고천용 김병조 김재희 김충섭 민기남 박상준 서성용 오세원 윤선희 이미예 이상수 이윤무 이재용 이현주 이형삼 임 순 임한나 정남형 정정현 최영신 한혁수 황인중 황지영
합계:\$10,125	합계 : \$2,955
주일미사 헌금 : \$2,783	한남체인 : \$260 감사헌금 : 한길선례 (\$200)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마르코 복음 (Mark), 노트 제공 (2월 8일)
 - 대상: 주일학교 모든 학생
 - 필사 마감: 3월 29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 대 축일 미사 중 (4월5일)
- *시상은 전권을 필사한 아이들에게만 한함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스케줄

초등부

March 1: 2nd-3rd grade

March 8: 4th grade

March 15: 5th grade

March 22: 6th grade

중.고등부 : 사순 피정에서 진행됩니다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4월5일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 3월22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세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타성당 판공성사일정

- 3월10일 : 평화의모후성당
- 3월12일 : 성 요셉 성당
- 3월17일 : 성마태오성당
- 3월18일 : 순교자성당
- 3월19일 : 성 아그네스 성당, 성 프란치스코 성당
- 3월23일 : 성 토마스 성당
- 3월24일 : 성 바실 성당
- 3월27일 : 성삼 성당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신현화 헬레나 991-4838 3/ 4(수) 오후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701-6343 3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6(금) 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모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14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심재은 클레멘스 991-8558 3/14 (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3/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현석주 아오스당 625-3312 3/21(토)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운옥 마리아 634-6923 3/13(금) 오전11시 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희연 루시아 818-6903 3/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박정희마리아 404-1607 3/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8 (일)오후 6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십자가의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박경주 요아킴 522-2933 3/14(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십자가의길’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377-6752 3/10(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모임	오후1시
-------	------

124위 시복 특집< 21 > 동정부부 3.

유중철 요한?(1779~1801)

이순이 루갈다(1782~1802)

유문석이 떠나고 한 시간이 채 못 되어 유중철과 유문석 형제가 교수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중철이 22세의 나이로 순교한 뒤, 옥중의 이순이는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편지 한 장이 집에서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의 옷 안에서 자기 누이(아내 루갈다)에게 보내는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에는 ‘나는 누이를 격려하고 권고하며 위로하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뒤, 전주 판장은 이순이와 가족들에 대한 판결을 조정애 요청하였고, 조정에서는 곧바로 이를 담당할 관리를 전주에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이순이를 비롯한 가족들은 유배 형을 받았고, 이순이는 함경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순이는 가족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하느님을 공경하였으니 모두 국법대로 죽어야 마땅합니다.”하고 항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순이와 가족들은 결국 유배지를 향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배지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쫓아와 그들을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하마터면 치명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 뻔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 이순이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다시 전주 감영에 당도한 이순이와 가족들은 서슬 퍼런 심문에도 다만 하느님을 공경하며 죽기를 원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감사는 사형을 선고한 후 몽둥이로 정강이를 치고 칼을 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전라 감사가 의금부에 장계를 올린 지 20일이 지나도록 이들을 처형하라는 기별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순이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소일 삼아 친정 언니와 올케 등 다른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이는 편지에서 유배지의 관비가 되는 것보다 치명자가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내가 죽는 것을 산 것으로 알고, 산 것을 죽은 것으로 알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순교자들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의(義)를 배반하고 사는 것은 천지의 죄인이라 살아도 죽은 것만 같지 않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1802년 1월 31일, 이순이는 판결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숲정이라 불리는 전주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 형으로 순교하였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 스물이었습니

어머니의 어눌한 성호경

어머니,

오늘 어머니는 5주차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뇌졸중도, 다시 온 뇌 경색도 주님의 축복 이시라는 어머니,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갈 뻔 했다는 어머니 말씀은 그대로 제게 복음이 되고 간증이 되었으며, 생애 처음으로 신앙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했습니다. 요양병원 침대 식탁에 제가 코팅해서 붙여 놓은 성호경과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을 아기 같은 목소리로 아기처럼 더듬더듬 읽으시는 어머니, 방문 교리 봉사자로 매주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유스티나 자매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제 세 번만 더 교리를 하면 어머니는 ‘마리아’란 본명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태어난 지 삼칠일 만에 어머니를 잃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팔십 평생을 속 울음조차 울 수 없었던 어머니,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갖게 해 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즈음, 매일 기적의 세례를 받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본명인 동시에, 당신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머니가 되실 분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15년을 뇌졸중과 싸워 오시며 작년 10월 다시 뇌 경색 발병으로 이제는 말조차 어눌해진 어머니, 당신을 응급실로 모셔 가는 앰블런스 사이렌의 공포 속에서 저는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두려웠습니다. 1초 전의 시간도 벌써 애ത해져 온 몸은 울음주머니처럼 무거웠지요.

어머니,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팔을 끌어당기는 누군가에게서 어머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생을 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어머니의 교리 시작과 함께 혼자서 덜덜 떨며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팔과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제 뒤에서 어떤 힘이 제 몸을 붙잡고 함께 어머니를 당겨주고 있는 기운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 힘의 주인공도 저는 감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이 딸릴 때마다 저는 그분을 돌아다봅니다. 그러면 모세혈관 갈피갈피 그분의 응원과 지지가 느껴집니다. 세례 받은 지 이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로 하여 처음으로 깨우친 은총입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고 15년, 고아처럼 울며불며 외로웠던 이 딸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앞세우고 오셨습니다.

눈과 바람과 찼찼하게 시린 영하의 겨울이, 어머니께서 쓰러진 뒤 칼날 같은 긴장으로 늘 아팠던 어깨와, 먹구름처럼 막막한 시간을 버티느라 온 힘을 실었던 무릎과, 스스로가 만든 서러움으로 빙판 같았던 가슴에서 새 생명의 물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세례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봉헌하는 이시기, 어머니! 당신은 ‘마리아’로 다시 태어나 무남독녀 이 딸의 새 힘이 되시고 기도의 전구자가 되시며 모든 소망의 도착지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분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될 저는 얼마나 복된 자녀인지요. 생사를 오가는 눈물 젖은 길에서 어머니 손을 잡아 ‘마리아’란 천상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 주님께 오늘날 어머니의 어눌한 성호경을 바칩니다. 부족한 이 딸의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 서석화 도미니카 / 창5동성당